

體質에 따른 針治療를 위한 文獻的 考察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

한경석* · 박성식*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for the Constitution

- Through the Study for the Detail of 『HwangJeNaiKyung』 (黃帝內經) -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A branch of acupuncture is to be tender at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 studying 『HwangJeNaiKyung』, we find the commencement of sasangin-acupuncture that Dong-Mu was not discovered.

2. Method

We select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of 『HwangJeNaiKyung』, and analysis that.

3. Result

We can find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of 『HwangJeNaiKyung』 as follows. The first, Acu-point of each constitution is not mentioned. The second, Acupuncture comparing with HyungJiGoRak(形志苦樂) of 『HwangJeNaiKyung』 is effective at mind-treatment. The third, the response of acupuncture supply the commencement that can divide YangIn(陽人) and EumIn(陰人). The forth, according to the fatness and the thinness it must be different with the depth of acupuncture and the time of acupuncture. The fifth, according to the HanYeulHeuSil(寒熱虛實) of constitution, there can be different the depth of acupuncture, the time of acupuncture and the count of acupuncture. But through 『HwangJeNaiKyung』 we can not find the commencement of the theory of Dong-Mu's SeungGangWanSok(升降緩束).

Key Word : HwangJeNaiKyung(黃帝內經), Constitution, Acupuncture, SeungGangWanSok(升降緩束)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한경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passik@hitel.net

I. 緒論

韓醫學에서 針과 藥은 不可分의 관계로 患者를 治療함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四象 臨床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醫學을 病證과 藥理를 中心으로 펼치고 있으나, 針에 대한 見解는 별로 없는 편이다. 단지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에서 “대개 針穴도 太少陰陽人에게 대한 應用穴이 있을 것이니 升降緩束의 妙한 理致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공손히 바라건대 이후에 謹慎하고 仁慈하여서 사람살리기를 좋아하는 이를 기다리노라”¹⁾라고 한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現在까지 體質別 針法은 太極針法²⁾, 八象體質鍼法³⁾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崔⁴⁾가 “體質에 應用되고 있는 針治療法에 대한 考察”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상의학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著者는 四象醫學의 針 理論에 대한 基礎的 資料 調査의 일환으로 針灸 理論의 最古經典으로 볼 수 있는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針에 있어서 個人的인 差異와 體質의 差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文獻材料 및 本論

1. 『靈樞』 「逆順肥瘦」 : 年質壯大 血氣充盈 膚革堅固 因加以邪 刺此者 深而留之 此肥人也. 廣肩 腋項肉薄 厚皮而黑色 脣臨臨然 其血黑以濁 其氣滯以遲. 其爲人也 貧於取與. 刺此者 深而留之 多益其數也. 瘦人者 皮薄色少 肉廉廉然 薄脣輕言 其血清氣滑 易脫於氣 易損於血 刺此者 淺而疾之. 視其白黑 各爲調之 其端正敦厚者 其血氣和調 刺此者 無失常數也. 刺壯士眞骨 堅肉緩節監然 此人重則氣滯血濁 刺此者 深而留之 多益其數. 輕則氣滑血清 刺此者 淺而疾之. 嬰兒者 其肉脆 血少氣弱 刺此者 以毫鍼 淺刺而疾發鍼 日再可也.⁵⁾

『靈樞』 「逆順肥瘦」에서는 사람의 黑白, 肥瘦, 老少에 따라서 刺鍼의 深淺, 留疾, 鍼數의 差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年齡과 體質에 따른 刺針方法 (『靈樞』 「逆順肥瘦」의 要約)

體質	特徵	針灸施術法
肥人	壯年 體格健壯 (血氣充盈 皮膚堅固)	深留 (邪氣를 감수할 수 있다)
瘦人	皮膚薄 色少 肌肉瘦瘠 薄脣 輕言(血清氣滑 易脫於氣 易損於血)	淺疾
嬰兒	肌肉脆 (血少氣弱)	毫鍼으로 淺刺後 疾發鍼 一日2回施術
慈多人*	肩膀廣大 項肉薄 皮膚厚 黑色 脣厚(血黑以濁 氣滯以遲)	深留 (回數를 늘림)
壯士	眞骨堅實 肌肉緩軟 骨節剛健	深留 (回數 늘림)
	人重則氣滯血濁 人輕則氣滑血清	淺疾
端正敦厚人* (肥瘦適中人)	血氣和調	無失常數

細註: *) 原文에는 없는 명칭으로 筆者가 原文속의 내용을 토대로 命名하였다.

2. 『靈樞』 「根結」 : 黃帝曰 言人骨節之大小 肉之堅脆 皮之厚薄 血之清濁 氣之滑滯 脈之長短 血之多少 經絡之數 余已知之矣 此皆布衣匹夫之士也. 夫王公大人 血食之君 身體柔脆 肌肉軟弱 血氣慄悍滑利 其刺之徐疾淺深多少 可得同之乎

岐伯答曰 膏粱菽藿之味 何可同也. 氣滑則出疾 其氣滯則出遲 氣悍則鍼小而入淺 氣滯則鍼大而入深 深則欲留 淺則欲疾. 以此觀之 刺布衣者 深以留之 刺大人者 微以徐之 此皆因氣慄悍滑利也.

黃帝曰 形氣之逆順奈何

岐伯曰 形氣不足 病氣有餘 是邪勝也 急瀉之. 形氣有餘 病氣不足 急補之.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 陽氣俱不足也 不可刺之 刺之則重不足 重不足則 陽俱竭 血氣皆盡 五臟空虛 根骨髓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86 : 57
 2) 이병행. 침도원류중마. 서울. 행림서원. 1974 : 344-354
 3) 권도원. 체질침. 대한한의학회보. 1965 ; 통권16호 : 25-28
 4)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體質에 應用되고 있는 針治療法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89 ; 1(1) : 183-188

5) 裘秉哲譯.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5 : 320-322

枯 老者絕滅 壯者不復矣. 形氣有餘 病氣有餘 此爲 陽俱有餘也. 急瀉其邪 調其虛實. 故曰 有餘者瀉之 不足者補之 此之謂也. 故曰 刺不知逆順 眞邪相搏. 滿而補之 則 陽四溢 腸胃充郭 肝肺內脹 陽相錯. 虛而瀉之 則經脈空虛 血氣竭枯 腸胃偏辟 皮膚薄著 毛腠天騰 予之死期. 故曰 用鍼之要在於知調 與陽. 調 與陽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 故曰 上工平氣 中工亂脈 下工絕氣危生. 故曰 下工不可不慎也 必審五臟變化之病 五脈之應 經絡之實虛 皮之柔脆 而後取之也.⁶⁾

『靈樞』 「根結」에서는 衣食住와 地位, 體質에 따른 刺鍼의 緩急 깊이와 形氣의 有餘와 不足에 따른 刺鍼時間에 대해 언급해 놓았고 여기서는 體質의 差異와 刺法의 구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衣食住와 地位 體質에 따른 刺鍼의 緩急 깊이 (『靈樞』 「根結」의 요약)

體質	平素飲食	針灸施術法	施術法의 根據
布衣者 (平民)	菽藿	深, 留	氣滯時 出遲 氣滿時 大針 入深
大人者 (王公, 大人)	膏粱	淺, 徐氣 (大人之氣 慳惓滑利)	氣滑時 出疾 氣悍時 小鍼 入淺 淺則欲疾

3. 『靈樞』 「論痛」 : 人之骨強筋弱肉緩皮膚厚者 耐痛 其於鍼石之痛火熯亦然. 堅肉薄皮者 不耐鍼石之痛 於火熯亦然.⁷⁾

『靈樞』 「論痛」에서는 사람의 筋骨, 肌肉, 皮膚, 腠理 腸胃의 두꺼움과 얇음 단단함과 취약함이 각각 다르고 針, 灸, 藥物을 견뎌 내는 것 역시 다름을 설명하였으며 임상에서 각기 상이한 체질에 근거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體質에 따른 針灸 藥物의 대한 忍耐力差異 (『靈樞』 「論痛」의 요약)

體質	特性
筋肉弱緩, 皮膚厚, 骨強 한 사람	耐痛 ∴ 針, 灸를 잘 참는다.
筋肉堅實, 皮膚薄 한 사람	不耐痛 ∴ 針, 灸를 잘 참지 못한다.

4. 『靈樞』 「行鍼」 : 重陽之人 熯熯高高 言語善疾 舉足善高 心肺之臟氣有餘 陽氣滑盛而揚 故神動而氣先行.

黃帝曰 重陽之人而神不先行者 何也

岐伯曰 此人頗有陰者也.

黃帝曰 何以知其頗有陰也

岐伯曰 多陽者 多喜 多陰者 多怒 數怒者 易解.

故曰 頗有 其陰陽之離合難 故其神不能先行也.

黃帝曰 其氣與鍼相逢 奈何

岐伯曰 陰陽利調 而血氣淖澤滑利 故鍼入而氣出疾而相逢也.

黃帝曰 鍼已出而氣獨行者 何氣使然

岐伯曰 其陰氣多而陽氣小 陰氣沈而陽氣浮者 內藏 故鍼已出 氣乃隨其後 故獨行也.

黃帝曰 數刺乃知 何氣使然

岐伯曰 此人之多 而少陽 其氣沈而氣往難 故數刺乃知也.

黃帝曰 鍼入而氣逆者 何氣使然

岐伯曰 其氣逆與其數刺病益甚者 非 陽之氣浮沈之勢也. 此皆臟之所敗 工之所失 其形氣無過焉.⁸⁾

『靈樞』 「行鍼」에서는 體質의 상이함으로 인해 刺鍼時 나타나는 반응이 각기 다르므로 인해 治療時에도 환자의 陰陽偏盛偏衰 정황에 근거하여 相異なる 方法으로 治療할 것을 強調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6) 上揭書 : 83-86

7) 上揭書 : 408-409

8) 上揭書 : 499-501

Table 4. 體質에 따른 刺鍼時反應
(『靈樞』 「行鍼」의 요약)

體質	刺鍼時 反應
重陽人	針刺時 神氣先行(氣가 빨리 온다)
陽多陰少人	針刺時 神氣不先行(氣가 빨리 안온다) (∴陰陽之離合難)
陰陽調和人	刺鍼과 氣(反應)가 同時 到達 (∴陰陽和調 而血氣渾滑利 故鍼入而氣出疾而相逢)
陰多陽少人	鍼已出하고서 氣(反應)獨行 (∴陰氣沈而陽氣浮者(陰氣가 많으면 떠오르는 性質을 가진 陽氣가 陰氣를 따라 가라앉아) 內藏 故鍼已出 氣乃隨其後 故獨行)
	數刺해야 氣(反應)이 나타난다. (∴其陽氣沈하여 氣往難)

5. 『靈樞』 「通天」 : ...古之善用鍼艾者 視人五態 乃治之. 盛者瀉之 虛者補之....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瀉 不能移之.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陽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 則強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此所以謂陰陽 別五態之人者也.⁹⁾

『靈樞』 「通天」에서는 稟賦의 상이함에 근거하여 사람을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少陽人, 陰陽人, 陰陽和平之人의 五態人으로 나누는 한편 그들의 의식과 성격의 特徵을 기술하고 그 治療原則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五態人의 性情과 治療原則
(『靈樞』 「通天」의 요약)

體質	針灸施術法	施術根據
太陰人	疾瀉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不能移之.
少陰人	陰陽盛衰 살핀후 治療	血易脫 氣易敗 (多陰少陽小胃而大腸六腑不調其陽明脈小而太陽脈大必審調之)
太陽人	必謹調之 無脫其陰瀉其陽	陽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多陽而少陰)
少陽人	陰氣充實後 陽氣瀉	多陽少陰經小而絡大血在中而氣外實陰而虛陽獨瀉其絡脈則強氣脫而疾中氣不足病不起也.
陰陽和平人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本經取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細註) 古代的 鍼灸治療에 능한 醫師는 (상술한) 다섯 가지 類型을 살펴서 치료하였는데 (邪氣가) 盛하면 瀉法을 사용하고 (正氣가) 虛하면 補法을 사용함.

6. 『素問』 「血氣形志」 : 形樂志苦 病生於脈 治之以灸刺 形樂之樂 病生於肉 治之以鍼石. 形苦志樂 病生於筋 治之以熨引. 形苦志苦 病生於咽嗌 治之以百藥. 形數驚恐 經絡不通 病生於不仁 治之以按摩醪藥. 是謂五形志也.¹⁰⁾

『素問』 「血氣形志」에서는 人體 形志苦樂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각각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형과 지의 상태에 따라서 針, 灸, 按摩 등의 치료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形志苦樂에 따른 침구치료의 원칙
(『素問』 「血氣形志」중 五形志의 요약)

形志苦樂	發病	治療
形樂志苦	病生於脈	治之以灸刺
形樂志樂	病生於肉	治之以鍼石
形苦志樂	病生於筋	治之以熨引
形苦志苦	病生於咽嗌	治之以百藥
形數驚恐	經絡不通 病生於不仁	治之以按摩醪藥

9) 上掲書 : 525-531

10) 衷秉哲譯.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5 : 258

7-1. 『靈樞』 「邪氣臟腑病形」 : 黃帝曰 病之六變者 刺之奈何. 岐伯答曰 諸急者多寒 緩者多熱 大者多氣少血 小者血氣皆少 滑者陽氣盛 微有熱 濡者多血少氣 微有寒. 是故刺急者 深內而久留之. 刺緩者 淺內而疾發鍼 以去其熱. 刺大者 微瀉其氣 無出其血. 刺滑者 疾發鍼而淺內之 以瀉其陽氣而去其熱. 刺濡者 必中其脈 隨其逆順而久留之 必先按而循之 已發鍼 疾按其拊 無令其血出 以和其脈. 諸小者 陽形氣俱不足 勿取以鍼 而調以甘藥也.¹¹⁾

7-2. 『靈樞』 「經脈」 :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盛者 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¹²⁾

7-3. 『靈樞』 「終始」 : 脈實者 深刺之 以泄其氣. 脈虛刺 淺刺之. 凡刺之法 必察其形氣 形肉未脫 少氣而脈又躁 躁數者 必爲繆刺之 散氣可收.¹³⁾
 『靈樞』 「邪氣臟腑病形」에서는 六腑病形 관련된 取穴, 針灸方法을 열거하고 있으며, 『靈樞』 「經脈」에서는 刺針時 寒熱虛實에 따라서 手技法과 留鍼時을 달리하라고 하며, 『靈樞』 「終始」에서는 循經取穴原則과 刺針時 深淺, 先後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Table 7.¹⁴⁾과 같다.

Table 7. 體質 病證과 刺針과의 관계
 (『靈樞』 「邪氣臟腑病形」 『靈樞』 「經脈」 『靈樞』 「終始」의 요약)

適應	刺針		
	深刺 留鍼 大針 多針	淺刺 不留鍼 小針 少針	
體質	肥胖 強壯 鍼感遲鈍	瘦小 虛弱 小兒 感應敏感	
病狀	寒證 實證	熱證 虛症	

III. 總括 및 考察

東武는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三陰三陽

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而 不必究其經絡之變也”¹⁵⁾라 하여, 經絡에 變化를 三陰三陽의 傷寒論의 視覺으로 보려고 했던 醫家들을 비판하였다.

「北韓保健省 東武遺稿」에서는 癰證, 瘡證등의 外科疾患에 대해서 患部에 艾灸, 大針, 火針, 糞灸를 시술하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으며¹⁶⁾, 「東醫壽世保元」에서도 라고 하여 유사한 내용이 기술된다.¹⁷⁾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는 鍼에 대한 내용이 한 군데 기술되는데¹⁸⁾ 癰疽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에서는 “嘗見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 其效如神 其他諸病之 藥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 有之 蓋 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 應用之穴而 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敬俟 後之謹厚而 好活人者”¹⁹⁾라 하여 針에 있어서 四象人의 應用穴이 있으나 東武는 스스로가 밝히지 못하였으니 누군가가 밝혔으면 한다고 하여 東武의 유일한 針에 대한 見解가 나온다.

여기서 東武는 四象人 針灸穴位를 選擇하는 原則으로 “升降緩束”을 제시하였다.

15) 前掲書. 東醫壽世保元 : 26

16) 李濟馬著 姜현무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 121, 182, 205, 209

“①... 連珠瘡上口常處 先以艾灸二三張破膚 而信石未付瘡口上 因以油紙片 如大錢大 內面四圍 用狗膽汁塗之 而虛其中適當瘡口信石附着處 掩貼之也 如此則非但痰核成膿也 亦善貼皮膚故也 ... ② 凡少陰人危症 內痛 過男七日女九日 不治則危也 大針外無他術也 ③ ... 以上諸瘡以人糞灸之 自二三十壯 或至百壯 解瘡毒莫如此藥也 若人糞灸 過時先治 而觀其病勢不效則水銀薰之 上策也 ... 少陽人脚癰 火鍼後 浮血惡汁不盡出 而外面 生肉完合 則肉內再癰 而多有癢脚者 可勝歎哉 必也火鍼之後 以鷄子黃油塗傅柱端 納火針孔中 一晝夜 二三次易之 連日用之 則惡汁盡出 而生肉完合 無後患耳 蓋火鍼後 鷄子黃油柱 必不可闕耳 去根核 強용지족아末和川蟹 或石蟹用之 則神效 ④ 少陰人背癰 急治爲上 以火刀亂割 以散爲上策 不可以人糞灸之 水銀薰之 內服溫補藥可也”

17)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譯음. 四象醫學. 集文堂. 1997 : 455

“8-19. 嘗見少陰人乳傍近脇 發內癰 有醫 教以火針取膿 醫曰 內癰外證 惡寒發熱 似傷寒 而有痛處也 察其痛處 明知有膿 則不可不用火針”

18)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四象體質科. 1999 : 15

“中風 關格 咽喉 癰疽 諸般急病 時刻易失 速針藥之 敏捷者必中之”

11) 前掲書 : 68-69

12) 前掲書 : 139

13) 前掲書 : 124

14) 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教室 編著. 經穴學. 集文堂. 1994 : 1101

現在까지 體質에 따라 응용되는 針法으로 李炳幸의 太極針法과 權度沅의 體質針法을 들 수 있지만, 東武가 제시한 升降緩束 理論은 다소간 거리가 있으며, 극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¹⁹⁾

이에 著者는 針灸療法の 古典이라 인정되는 黃帝內經에서 四象人의 활용할 수 있는 穴位 또는 針灸原則의 단서를 찾기 위해 黃帝內經의 體質別 針法을 찾아 보았다.

우선 「黃帝內經」에서의 體質分類를 보면 첫째 五行歸屬의 方法으로 「靈樞」 「陰陽二十五人」에서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개의 主型으로 分類하여 다시 다섯 개의 亞型으로 분류하여 25體質로 分類하였고, 둘째 陰陽含量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靈樞」 「通天」에서는 太陰人, 太陽人, 少陰人, 少陽人, 陰陽和平人의 五態人으로 분류하였고, 셋째 形態와 機能의 特徵을 分類하는 方法으로는 여러 篇에서 언급되었는데, 「靈樞」 「逆順肥瘦」에서는 肥人 瘦人 陰陽適中人 壯士 등으로 분류하였고, 「靈樞」 「衛氣失常」에서는 肥壯型을 膏型 脂型 肉型의 세종류로 분류하였고, 「靈樞」 「壽夭剛柔」에서는 剛柔로 分類하였고, 「靈樞」 「論勇」에서는 勇怯으로 分類하였고, 「素問」 「血氣形志」에서는 形志苦樂으로 分類하였다.²⁰⁾ 이 중에서 陰陽含量으로 분류한 五態人은 陰陽盛衰 性情 特性和 外貌 등은 四象醫學의 四象人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내용에 비해 治療方法은 매우 빈약하고 모호한 말로 되어있고, 그 내용 또한 陰陽和平人을 除外하고는 매우 否定的인 내용뿐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體質의 차이에 따른 鍼法을 언급한 곳이 「靈樞」에서는 「逆順肥瘦」, 「根結」, 「論痛」, 「行鍼」, 「通天」의 5篇에서 찾아 볼 수 있었고, 「素問」에서는 「血氣形志」의 1篇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黃帝內經은 한사람의 著作物이 아니기 때문에 體質의 分類가 제각각이며 針灸法에 있어서도 總論의인 治療原則만을 기술해 놓았고 구체적인 治療穴位들을 밝혀 놓은 바는 없었다. 따라서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黃帝內經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보면 總括

19)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敎室 譯. 四象醫學. 集文堂. 1997 : 260-261

20) 王琦主編金達來譯. 中醫體質學. 鼎談. 1999 : 14

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靈樞」 「逆順肥瘦」에서와 같이 肥瘦한 體質을 나누어 鍼治療하는 方法으로 刺針時 肥人은 深而留하고 여러번 刺針할 수 있으며 瘦人은 淺而疾할 수 있다.

肥人과 瘦人을 四象人으로 나눈다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으나, 肥瘦에 따라서 留鍼時間과 刺針깊이를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素問」 「血氣形志」에서와 같이 針을 주로 쓸 것이나 藥을 주로 쓸 것이나 하는 것은 形肉體的인 面)과 志(精神의인 面)의 苦樂를 살펴보다 주로 해야 하는 것을 달리 해야 하는데, 鍼灸治療는 形樂할 때 즉 肉體가 편안하거나 運動不足 등일 경우 精神的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藥이나 按摩의 사용은 形苦할 때 즉 過度한 努力 등으로 육체가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사용한다²¹⁾고 하여, 針과 藥의 效능을 구분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治心治病'이라 하여 精神的인 方面의 治療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黃帝內經의 形志苦樂과 연결시켜 볼 때, '治心'하기 위한 方法으로 針이 매우 좋은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靈樞」 「邪氣臟腑病形」, 「靈樞」 「經脈」, 「靈樞」 「終始」에서와 같이 肥胖, 強壯, 鍼感遲鈍한 者와 瘦小, 虛弱, 小兒, 感應敏感한 者로 나누어 針治療하는 方法으로, 肥胖, 強壯, 鍼感遲鈍한 者에서는 寒證, 實證이 잘 나타나며 深刺, 留鍼, 大針, 多針해야 하고, 瘦小, 虛弱, 小兒, 感應敏感한 者에서는 熱證, 虛症이 잘 나타나며 淺刺, 不留鍼, 小針, 少針해야 한다.

이는 四象人의 病證을 寒熱虛實로 구분하여 應用

21) 王琦主編, 金達來譯. 中醫體質學. 鼎談. 1999 : 55
形志苦樂의 解釋

形志苦樂의 분류		形志苦樂에 따른 내용	
苦	形體方面	過度한 努力 形體機能活動에 反對로 동작	
	精神方面	精神이 憂鬱 생각이 많음 苦心한 心志 憂鬱 걱없음등	
樂	形體方面	正常	形體가 편안함
		非正常	形體의 지나친 安逸 運動不足
	精神方面	正常	精神이 유쾌함 심정이 펼쳐지는 것
		非正常	精神과 心志의 過度한 興奮

해 볼 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네째, 「靈樞」 「論痛」에서와 같이 刺針時 針의 反應으로 陰人과 陽人을 구별할수 있는데 陽人은 刺針시 氣反應이 빨리 오고 陰人은 出針하고서 針反應而 오거나 여러번 刺針해야 氣反應이 온다.

四象人에서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는 四象人辨證에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黃帝內經에서 기술된 體質의 차이에 따른 針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體質에 따른 具體的 穴位는 言及하지 않고 總論의 인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黃帝內經의 形志苦樂과 연결시켜 볼 때, '治心'하기 위한 方法으로 針이 매우 좋은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刺針時 反應에 따라서 陽人과 陰人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 肥人과 瘦人에 따라서 刺針의 깊이와 留鍼時間을 달리해야 한다. 다섯째, 肥胖, 強壯, 鍼感遲鈍한 者와 瘦小, 虛弱, 小兒, 感應敏感한 者를 區分하여 特徵적으로 나타나는 寒熱虛實의 病證에 따라서 刺針의 깊이, 留鍼時間, 針의 개수를 달리한다. 그러나

黃帝內經을 통해서 東武의 升降緩束 理論과 결부시킬 特征적인 단서는 찾기 힘들었다.

參考圖書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社. 1986.
2. 이병행. 침도원류증마. 행림서원. 1974.
3. 권도원. 체질침. 대한한의학회보. 1965 ; 통권16호.
2.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體質에 應用되고 있는 針治療法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89. ; 1(1) : 183-188
3. 裴秉哲譯.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5.
4. 裴秉哲譯.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5.
5. 李濟馬著, 梁현무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6.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四象體質科. 1999
7. 王琦主編, 金達來譯. 中醫體質學. 鼎談. 1999.
8. 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學教室 編者. 經穴學. 集文堂. 1994.
9.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譯음. 四象醫學. 集文堂. 1997.